

제 30 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강림후2)

1973. 6.24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강 료】



생명의 빵

범 석 규 신부

오늘은 성체 축일입니다. 성체 축일을 맞이하여 성체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반성합니다.

교회안에는 여러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그 성사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체성사만은 은총을 주실뿐만 아니라, 2천년전에 살아계셨던 하느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므로 성사중에 가장 큰 성사입니다.

2천년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께서 적은 밀떡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교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행적을 본 그들도 이 교리만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교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불러 이르킬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 주셨으니, 즉 다섯개의 빵과 두마리의 생선으로 5천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여 주신 기적을 (요한 6, 6~15) 보여주시고, 그날밤에는 물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적(요한 6, 16~21)을 보여 주신 다음날 성체성사를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다 죽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것입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빵은 곧 나의 살이며 그것으로 세상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요한 6, 48~51) 이 말씀을 하셨을때 기적의 빵을 얻어 먹은 그들이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서로 논란을 할만큼 어려운 교리이기에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이르키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다 죽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빵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먹여 살렸던 기적의 빵 만나 보다 낫다고 한다면 그것이 밀로 만든 빵 이상의 것인 당신의 살이 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빵안에 살아계신 성체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며 자주 영성체를 하므로써 성체안에 사는 알찬 신자 생활을 합시다.

(전통 천주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나는 내 백성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주고 바위 틈의 석청으로 배불렀도다.

□**제1독서** (출애굽기 24 : 3-8)

이것은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창제송**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오리.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

□**제2독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으신다.

□**성체송가**

천상 빵인 우리 음식/자녀들의 음식이니/개에게는 주지말라.

희생 제물 이사악도/빠스까양과 만나 또한/이 성사의 전표로다.

참된 음식 착한 목자/우리 먹여 기르시고/영생 행복 주옵소서.

진지 전능 주 예수여/죽을 인생 먹여 살려/영복속에 부르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하늘로 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이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복음** (마르코 14 : 12-16, 22-26, 성서 P. 112)

이는 내 몸이요, 이는 내 피니라.

□신자들의 기도

1. 사랑이신 주여,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기르시는 당신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아들어, 우리의 이웃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줄 알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화해의 주여, 민족 상잔과 분열의 비극이었던 6.25의 쓰라린 과거를 거울삼아, 한국 주교단의 결의대로, 월남의 전후 복구에 보탬을 아끼지 말게 하소서. ◎

3. 우리 안에 내재 해신을 요구하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년 선포의 참뜻을 제대로 알아 듣게 인도하소서. ◎

+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신 천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청하는 바를 내려 주시며 감히 청하지 못하는 바도 덤으로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영성체송** 내 살로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살리라.

본당 코너

□중앙성당□

가 정 에 평 화

전주 중앙성당에서는, 본당의 사목지침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본당 주보축일 행사를 설정하여, 금년에 두번째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해성 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했을때도 구역별 가장행렬이 인기를 독차지했었고 여러분들의 협조로 성황리에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가장행렬은 물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꼬마까지도 다같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놀이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부디 오셔서 부담없는 하루를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73. 6. 24

전주교 중앙교회 사도회장 김 종 순



□□ 주보 축일 행사 안내 □□

1. 때 1973년 7월 1일 (예수 성심 축일)
※ 우천시 연기
2. 곳 중앙성당과 해성중·고교 교정
3. 일정 10시-11시 미사("가정에 평화"를 위한)
11시-12시 가장행렬(성당→해성학교)
12시-12시 30분 밴드 플레이 (해성학교 악대)
12시30분-1시 입장식(가장행렬)
1시-2시 점심 (각자 도시락 지참)
2시-6시 각종 경기
6시 시상 및 폐회
4. 행사 (가) 각 구역별 대항
 - ① 가장행렬 ② 릴레이 ③ 응원
 (나) 청·백 대항
 ※ 청군-고사, 태평 1.2가, 진북 2구, 서신동 (단장 이복석 부회장)
 ※ 백군-경원, 서노 1.2구, 중노, 인후 진북 1구, 금암(단장 이용호 부회장)
 ① 미취학 어린이-과자 따먹기
 ② 국민학생-줄다리기
 ③ 남자 중학생-기마전

- ④ 남자 고등학생-장애물 경기
- ⑤ 고등학생과 청년-배구(남자 7 여자 2)
- ⑥ 여고생과 처녀-던치볼
- ⑦ 장년-공굴리기
- ⑧ 부인-찾아 달리기(인물 및 물품)
- ⑨ 할아버지-남시
- ⑩ 할머니-주머니(오재미) 넣기
- ⑪ 사도회 임원-신랑 신부 웃 입히기

5. 시상 (가) 각 구역별 대항

① 1등, 2등, 3등

② 응원상

(나) 청·백 대항

출전자 전원 시상

6. 부시 (가) 준비-정주복, 박해근, 양학도, 이희창

유대회, 김경주

(나) 동원-각 구역회장과 반회장

(다) 진행-박태복, 이종출, 장남수, 전준선
이기호(라) 심사-안복진, 김종순, 이상용, 김영진
천진, 김성원, 수녀 2인

(마) 안내-부녀부 (부장과 부원 10인)

(바) 경비-J. O. C 회원

(사) 의무-간호 대학생

★ 알 림 ★

전주 시내 6개 본당의 구심점이 되어온 합동 주보 <금정>가 30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간 각 본당에서 10년씩이나 펴내오던 본당 단위 주보들을 합동으로 발행하여 얻은 점도 많았으나, 본당 자체의 소식을 전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본당에 지면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본당에서는 1년에 두차례씩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에어콘 냉방
시설 완비

미미 제과소

전 화 ③ 6 5 8 9

(미미사장 ② 3915 번)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옆)

김 민 주 (가타리나)

왕 자 표 연 탄

전화: ②5287 ③ 6504

교형 자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역전에 새로 공장을 차렸읍니다.

최신 자동 운전기를 시설하고 품질을 보증하오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한 수 욱(본도)

* 대화의광장

* 잔디밭



6.25와 생각나는 일

정 마 리 아

해마다 6.25가 되면 복괴의 만행이 생각키워지고 아슬
러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6.25가 발발한
이듬해 늦가을이라 기억이 된다.

그때 난 노시부모님을 모시고 5살과 2살난 어린애를
키우며 진안 어느 산골에서 농사 일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고, 애기아빠는 6.25가 일어나기 바로 전 해부터 경
찰에 투신, 그당시엔 빨치산 (북괴공비와 지방의 적색분
자) 토벌 작전에 참가하고 계셨다. 저 유명한 지리산 공
비 토벌작전이 치열했던 때라 생각이 든다.

그 늦가을 어느날 경찰에 제시는 그분이 뜻밖에도 몇
일간의 휴가를 얻어 집에 오셨던 것이다. 것처럼 사회분
위기가 혼란한 때이라서 부모님의 반가워 하심은 대단
하셨으며, 나 역시 부모님 못지않게 제복의 그분이 걱정
스럽게도 여겨졌지만 우선 반가운 마음 뿐이다.

그런데 집에 오시자마자 부모님과 몇마디의 말씀을
주고 받으시더니, 무릎의 아기틀래며 놓으시며, 우리 마
울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 성당에 가서서, 성사도 보시고
다음날 미사에 함께까지 하시고 오신다지 않으시겠는
가? 그때 난 그분의 깊은 신앙심에 감동도 했으나, 어
쩍 그런 그분이 뭇게까지 여겨졌다 함이 솔직한 심정이
리라. 그러나 그때, 그분을 성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되었던 주님의 기적같은 사실이, 그리고 집에
오시자마자 성당으로 떠나시는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
던 나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게 했던 사건이 불과 몇시간
후에 일어났던 것이다.

그당시 이웃마을에는 지방인으로서 복괴의 사상에 젖

은 지방 빨치산들 몇명이 산에 숨어살며, 밤이면 마을에
내려와 지방민을 괴롭히고 있으며, 특히 경찰이나 군인
에 대하여는 더 할 수 없는 적개심을 갖고 있었으니,
경찰가족인 우리로서는 대단한 근심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밤, 빨치산들이 그분이 휴가를 오셨다는 정
보를 입수하고 우리집을 습격하였던 것이다.

그날밤, 부모님을 비롯한 온 가족이 밤새도록 상상하
기조차 무서운 공포의 시간을 넘겨야만 했었다. 이유인
즉, 그분이 집에 있으니 찾아내라는 것이며, 그렇지 않
으면 온 가족을 몰살하겠다는 것이다.

그때 난 두 어린아이를 부둥켜안고, 잔악한 그네들의
총부리 앞에 사실을 얘기했으나, 양심과 천륜을 배반한
그네들을 이해시키기엔 너무나 미력했었다. 마을 주민의
신고로, 뒤통게 달려온 대원 아저씨(현재 향토예비군 같
은 조직체)들에 의하여 그네들은 완전 소탕이 되었고 우
리 가족은 구출될 수가 있었다.

그날밤 우리 가족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넘겼다 하더
라도, 그분이 무사하셨다 함은 오직 그분의 굳은 신앙심
과 주님의 안배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일 그분
이 성당엘 가시지 않으시고 집에 계셨다면 하고 생각해
볼 때 지금도 몸서리가 쳐지는 것이다.

그때 두살짜리 머슴애가 벌써 자라 현재는 민족의 방
패로서 군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지만, 나는 해마다 이만
때가 되면 그날이 되새겨 짐은 물론, 주님의 은혜에 대
한 더한 감사를 들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혹시나 신앙
생활에 게을러 지지나 않을까 하고 그때 그 교훈을 들려
주며, 주님의 안배하심이 항상 우리 가정에 떠나지 않으
시길 오늘도 이렇게 기구하는 것이다.

〈전주시 서노송동 은하식당〉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26일 (화) 성경교실 (8시)

27일 (수) Recreation, 다함께 노래부르기 (8시)

30일 (토) Situational English (5-6시, 휴게일)

31일 (일) 음악감상 (8시, 휴게일)

※ 새로운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 문화교실 그전과 같이 계속합니다.

부어 : 목요일 8시

영어 : 금요일 8시

독어 : 화, 수, 금 5시 6시

* 축 발전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 축 발전 *

동남 샵

{ T V
냉장고
선풍기

전 주 대 리 점

전 화 ②8121

여 요 셉(운창)

1. "월남 돕기의 날" 행사 (6월 24일) 한국 교회에서는 금년 6월 24일 주일을 "월남 돕기의 날"로 정하고, 이날은 월남의 복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적극 협조합니다.
2. 교황 주일 (7월 1일) 다음 주일은 교황 주일입니다. 교황님을 위한 특별 기도와 헌금(신자뿐 아니라 성직자와 수도자도)을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합니다.
3. 서품식 (7월 3일 <화> 오전 11시, 중앙성당) 사제품을 받으시는 이재후(이리), 부제품을 받으시는 박종근(중앙), 서석구(장계), 시종직(7명), 독서직(6명)을 받으시는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 꾸르 실로 6월 월드레아 (6월 25일 <월> 오후 8시반)
남부지구-북자, 서학동, 전동 관내 꾸르실리스타는 성심학교에 모이시기 바람
북부지구-노송동, 덕진, 중앙 관내 꾸르실리스타는 중앙성당에 모이시기 바람
5. 전주지구 학생회 제3차 봉사활동 학생 회원들은 다음주일 5시반까지 비를들고 노송동 성당앞에 모이기 바람.

(중암)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준

1. 주보 축일 기념 제2회 본당 단합대회 (7월 1일)
 - ① 전 교우들의 참석바람 (외곽교우 가정도 전 가족의 참석바람)
 - ② 각 가정은 도사락을 지참하시기 바람.
 - ③ 가장행렬 출전자는 공식미사 중에 준비하시기 바람 (미사는 공식미사외의 다른 미사에 참례하십시오)
 2. 사도회 긴급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주보축일 기념행사 준비 회의에 사도회 임원과 준비위원 및 각 구역장·반장의 전원 참석 바람.
 3. 월남 돕기 특별헌금 (오늘)
 4. 재속 형제 월례회 (다음주일 오후 1시반, 노송동)
 5. 학생 예능 및 기능 발표회 (문학, 미술, 가정, 기술)
 - ① 출품 기한~6. 29~7. 1 오후 8시~10시
 - ② 출품 장소~앰마누엘 쉼 회의실
 - ③ 응모자격~고 1·2학년
- 지난주일 봉헌금 32,883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재속 형제 월례회 (다음주일) 새로운 규칙을 알기 위하여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4. 학생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본당 유지를 위한 교무금 납부에 협조합니다.
6. 월남 돕기 특별 헌금 (오늘)

□ 지난 주일 봉헌금 15,877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사도회 회합일 변경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8시에 사도회 있습니다.
2.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피정비 미납금을 금주내에 완납합니다.
4. 월남 돕기 특별헌금 (오늘)
5. 미사시간 안내
주일-오전 10시 (공식미사), 오후 4시 아동미사)
※특전미사-토요일 오후 8시
평일-오전 6시 30분-월, 수, 금요일
오후 8시-화, 목요일
미사시간 10분전 까지 성당에 오시어 준비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4,930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저녁 미사후)
2. 프란치스코 재속회
 - ① 형제 월례회 (다음주일 오후 1시반, 노송동)
 - ② 형제 심의회 (6월 30일 10시, 노송동)
 - ③ 형제회 수련 연기
3. 사제 양성 후원 월부금은 약속일에 납부합니다
4. 교무금 완납하여 본당운영 도움시다.
5. 유아세례 (다음주 주보에 공고하겠습니다)
6. 월남 돕기 특별헌금 (오늘)

□ 지난주일 성미 3말 1되, 누계 157말 6되 5홉

□ 지난 주일 봉헌금 13,02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교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전동)
2.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교무금을 속히 봉헌합니다.
4. 월남 돕기 특별헌금 (오늘)
5. 6월 26일 (화)은 아침미사

□ 지난 주일 봉헌금 9,447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교미시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사제관)
2.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3. 예비 신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나, 저녁미사 후 교리시간에 반드시 청강하시기 바랍니다.
4. 유아세례 (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5. 7월 17일에 첫 영성체 만 6세 이상의 어린이 가운데 첫 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는 26일 (화)부터 매일 오후 5시에 교리지도에 내보냅니다.
6. 셀 강습회 (다음주일 11시, 유치원)
7. 월남 돕기 특별헌금 (오늘)

◎ 전진성사 받으신 230형제 자매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도회-

□ 애령회 특별헌금 7,749원,
지난주일 봉헌금 36,352원, 감사합니다.

◎ 담·염소·야생동물 일체 ◎

화랑 상회

<교우들에 특별 봉사>

최 병 수 (안당)

남부 시장 담전 전화 ②6691 (교환)108



최 씨 관 집

상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 (전화 ② 6691 교환85번)